

###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

일시: 2013년 2월 25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김준원·노미향·박해천·박흥근·이묘숙·임선숙·임효택·조미옥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이 위원장으로,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이 총무로 선임됐다. 제7기 독자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광주일보의 제작에 대한 평가와 비판, 조언을 하게 된다.

# 수요자 중심 제작... 따뜻한 감동 주는 기사 더 많이 실어야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울 창간 61주년 명성  
지역사회 큰 힘 돼주길

임선숙 (변호사)



수지여사 9년후 인권상  
수상 과정·이유 부족했다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무등산 국립공원 정보 많아  
스페셜 올림픽은 관심 부족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학생들 NIE 활용기사 적어  
신문참여공간 만들어줬으면

박흥근 (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日선진노인복지 시리즈 눈길  
광주 노인시설 실태 아쉬움

▲김윤하=제7기 독자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위원장으로 선출돼 영광스럽다. 광주일보는 작년에 창간 6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 한갑이다. 누적 발행부수가 2만여 호에 달하는 정통 언론기관으로 광주지역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신문을 제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자의 대표로서 광주일보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은 충고하겠다.

▲임선숙=아름다운 수지여사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로 제5회 광주 인권상(2004년) 수상이 있다. 하지만 수여 과정과 이유, 9년이 지난 뒤 받는 사연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 수지여사에게 수상 소감을 묻고 이를 기사화 하는 것도 지역 신문만의 특화 소재다. 2월1일자 1, 3면에 걸쳐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점들이 아쉬웠다.

새 정부 호남 인사 등용에 관한 기사에서 '광주 소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중앙지는 같은 내용을 하나의 현상으로 표현하며 가치를 담지 않는다. 광주일보가 새 정부의 인사에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한다면 '소의'가 아닌 '차별'이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지역 신문으로 확고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2월8일자 '이윤석 의원 비서관 전술 통했다' 기사는 읽기에 다소 부담스러웠다. 기획재정부에 욕설과 협박을 해 예산을 가져왔다는 내용인데 첫째는 정치인이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둘째는 다른 지역에서 호남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우려에서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 한다.

▲노미향=광주일보에 실린 무등산 관련 기사에서 얻은 정보가 많다. 국립공원이 되면서 무등산과 관련된 여론이 광주 천변처럼 개발과 환경보전으로 나뉠 것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 남구 청사 미술작품의 연속기사는 세심한 취재가 돋보였다.

1월9일자 '광주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제멋대로' 기사를 보며 실제 드러나지 않던 잡작하는 사실들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소됐다. 채용 공고를 봐도 혹시 내정자가 정해지진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기관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후속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평창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은 장애인들의 축제로 광주에 성화도 왔다. 그러나 1월30일자 스포츠면 '106개국 3000여명 선수들 투게더 위켄'은 스페셜 올림픽 기사임에도 제목과 사진으로는 관련 기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옆면에는 우즈와 신지에 사진이 컬러로 크게 실렸다.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여 아쉬웠다.

▲조미옥=학교에서 NIE(신문활용교육)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학생들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사가 적다. 청소년은 미래의 독자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사, 신문 읽는 것을 불편해 하는 요즘 학생들이 신문을 먼저 찾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학생들이 신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뉴스를 접한다. 신문은 종이 지면을 만들고 읽으며 느끼는 특별한 감동이 강점이다. 신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런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사가 많아져야 한다.

▲박흥근=2월6일, 2월13일에 걸쳐 '일본 선진 노인 복지 현황을 가다' 시리즈 기사가 나왔다. 노인 복지 시설을 살펴하기 위해 일본

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기사를 보니 그 때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의 노인 시설 실태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우리 지역 노인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특히 노인에 대한 감성적 배려가 부족하다. 일본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 이런 면을 비교했다면 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기사에서 전문 용어가 사용기도 하는데 1월31일자 경제면 '시멘트 가격 인상' 기사에서 '누베'라는 말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단어다. 용어를 풀어쓰거나 부연 설명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면 어떨까 한다.

▲임효택=프로 스포츠는 시즈와 비시즌이 있다. 언론도 비시즌에는 기사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지역민, 국내의 기사거리를 발굴해야지, 해외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비시즌에 생활체육현장, 학교, 장애인들을 찾아가 현장 방문 기사를 쓰면 어떨까. 광주지역 체육 인제나 스포츠 공간 등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더불어 2015년 하계 U 대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광주와 관련된 대회인 만큼 준비 사항을 발 빠르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프로 스포츠는 팬도 많고, 다양한 상품 모델이 있다. 하지만 아마추어, 엘리트 선수들은 그런 게 부족한 실정이다. 엘리트 스포츠는 지역 스포츠의 기반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엘리트 체육은 주말에 많이 진행된다. 적어도 월요일 지면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실리길 바란다.

▲박해천=요새 방송사나 신문사가 다루는 기사들은 대부분 사건, 사고 중심이다. 거칠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긴장을 풀고 볼 수 있는 편안한 지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언론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을 강조해주는 소수가 강조되길 바란다. '피플 & 라이프' 면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신속한 보도는 물론 특종을 잡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광주일보는 특종 있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보기 위해 독자가 먼저 찾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광주일보의 이 지면을 보면 살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신문을 제작해주길 바란다.

▲김준원=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은 중요하다. 하지만 흥분하고 눈살이 찌푸러지는 기사가 많을 수록 아침에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부담을 느낀다. 앞으로는 따뜻한 감동을 주는 기사가 더 많이 실리길 바란다. 좋은 기사, 따뜻한 기사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한다.

특집 기획 기사와 심층 기획 기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경제 분야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가 많다. 이 중에는 재테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와 정보도 더러 있다. 이런 정보가 담긴 광주일보 경제면을 스크랩해 읽는 독자를 봤다.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기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생산되길 바란다.

▲이묘숙=광주일보는 올해 들어 편집에 많은 변화를 줬다. 짧아 지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부터 제목에 오류가 자주 보인다. 1월4일자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기사 내용은 '회피'하는 것보다 '절세'하는 방법을 다뤘다. 1월25일자 경제면 '광주 집값 고공 행진'도 5년 사이에 광주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 광주의 집값이 높은 게 아니다.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프로스포츠 비시즌엔

생활체육 현장 담아줬으면

박해천 (조선대 대학원장)



밝은 이웃 밝은 사회 강조  
더 많은 지면 할애 필요

김준원 (광주은행 사회공헌국 본부장)



전문용어 좀더 세심하게  
심층 기획기사 많아져야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남도 축제 알리기보다  
충고·분석 기사 나왔으면

경제면에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기사가 많다. 주로 안내와 소개 내용이다. 주부나 일반인들은 그런 경제 정책이나 제품 출시가 가정 경제,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알고싶어 한다. 경제 활동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기사도 필요하다. 호남에는 축제가 많다. 문화 예술로 행복한 광주가 아니라 축제로 지치고 피곤한 광주다. 이것도 예산 낭비에 해당된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견제의 역할을 언론이 담당해야 한다. 축제를 소개하는 기사보다 분석하고 충고해주는 기사가 생산되길 바란다.

/정리=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삼희부동산

수익성 상가 건물 전문업체

▶ 평생 노후연금이 되는 수익성 있는 상가건물을 찾고 계십니까?

▶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부동산! 당일!에 계약가능합니다.

▶ 급하게 필요하신 자금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현재 수익률에 만족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임점부터 적합한 임대업종 선택으로 수익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010-8730-3340**  
동구 불로동 (구)그랜드 호텔 3층

###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이 이하물건

- 금남로5가 대지 265㎡(80) 건평990㎡(300) 감정17억 선 5층 건물 매도 10억2천
- 임동 5거리 상업지역 8층 건물 대지 186㎡(56) 건평 1127(341)은행 2억 매도5억
- 월산파출소 부근 신축건물 대지 437㎡(132) 건평 646㎡(195) 감정은 11억 선 대물4억5천 매도 7억2천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대지 649㎡(210) 건평 158평 공시지가 11억7천 매도12억
- 서방시장 4거리 대지 1182㎡(356) 건평 2850㎡(867) 병원·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억4천 매도 19억
- 중흥동 대지 301㎡(91) 건평 1124㎡(340평) 대물4억 5천 보증금 5천 월730만원 매도7천만원

####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910㎡(275) 2층주택 174㎡(52) 대물5천 매도 1억4500
- 광주역앞 대지 357㎡(108) 건평 1294㎡(397) 원룸55 부평17 대물3억 보증금 8천에 월400선 매도 7억
- 북구 우산동 대지 330㎡(100) 건평 1366㎡(412) 대물 6억 보증금 8천에 월 900선 매도 10억
- 병행면 천천리 땅 2546㎡(770) 주택 102㎡(31) 전원 생활적합 아파트나 주택과 교환가능 1억9천
- 동구 금동 상업지역 2층 주택 대지 192㎡(58) 건물 193㎡(58) 식당등 적합 2억2천

#### 나대지

- 별장용주택 순창군 회룡산 땅 1310㎡(396) 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1300㎡(400) 가든등 다양도 사용 교환가능 2억8천
- 화정역 인근 대지 1105㎡(334) 오피스텔 생활주택 적합 대물1억 매도 17억3천
- 북동 상업지 992㎡(300) 원룸 등 적합 7억8천
- 금곡동 1950㎡(590) 대물 3천 매도 4백
- 함평군 나산면 전과 대지 5375㎡(1620)은행 350 취득가 3500 매도4백만원
- 보성군 울어진 대지,전담, 임야 66000㎡(199650) 대형농장 종교시설등 적합 16억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송센터 옆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 (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 2890㎡ 감정가29억
-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편성시설 대지850㎡ 건평 1146㎡ 감정가11억 최저가4억

####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3억
- ▷ 무안군 현경면 단독주택 대지660㎡ 건평96㎡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

#### 공장 및 창고

- ▷ 광산구 안창동 하남산단내2층공장 토지5940㎡ 건물 6532㎡ 감정가36억 최저가25억
- ▷ 함평읍 장교리 관리지역 양어장및공장 토지14792㎡ 건물4292㎡ 감정가27억 최저가19억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 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7억3천만 최저가8억8천만

#### 토지 매매

- ▷ 화순읍 유전리 자연녹지 땅 207㎡ 감정가3억4천만 최저가2억3천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4천만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10억~100억 이상의 건물 급구함!  
=상가 및 사무(매매)=

- \* 사무지구 사무나 현상업종 최고의 수익률 보장(급매)
- \* 남구 진월동 국제호텔부근 상가건물 대지 약600평 건평 1000평
- \* 사무지구 중심지역의 상가빌딩 대지 173평 건평 1172평
- \* 사무지구 메인도로 대형빌딩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 \* 서구 광천 터미널부근 건물 대지 850평 대지 2.620평 (모든건물 공실없음, 임대수익 보장)
- \* 기타 외 현상업종인 건물 다량보유

= 토지매매 및 분양 =

- \* 황금노들의 명소, 서해바다 부안군 골소에 펜션터운부지, 전원주택부지, 한옥마을 부지를 300~500평단위로 분양합니다.
- \* 무안군 창래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적합 대지 2.340평
- \* 광양읍 덕례리 대지 2.800평
- \* 나주시 금천면 원곡 대지3.200평
- \* 광산구 송정역부근 대지 1.150평
- \* 사무지구 중심지역 대지 1.000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 전화접수 후 내방하시면 친절상담함

☎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안산 남쪽(장성출역)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쌍용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억4천만 원
- 설 명 • 위 토지는 장성 백안산남쪽 아래로 5,078평 부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최정통 우백호의 지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화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정우로 개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1. 본토지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묘지  
3. 오염원이 전혀 없는 과수원  
4. 조용한 절기도원  
5. 회사의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마음대로 가능함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십시오. 필요시 연락 주십시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 010-3609-5221

### 동원공인중개사 (사무지구 전문)

■ 상가건물 ■

-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보5억4천 월3500만 매49억
-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
-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보3억, 월1200만원 매23억
- \* 광산구 수완지구 보3억8천, 월1330만 매24억

■ 대지/답 ■

- \* 사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
-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
- \* 미북동생선복지 도로점 895㎡ 매710억원

■ 세종시 상업지 ■

- \* 세종시 상업지 1480㎡ 매78억원
- \* 세종시 상업지 1155㎡ 매42억원
- \* 세종시 1층상가 165㎡ 매11억원

상가건물  
건물가능 내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